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 · 소비 · 투자 전 부문에서 증가

○ 2005년 5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3.6% 증가하였고, 도소매 판매는 3.8% 증가하였으며, 투자는 7.7% 증가하였음.

- 5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0.9%), 자동차(15.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였고, 투자는 컴퓨터, 특수산업용기계 및 일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7.7% 증가하였음(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 다른 업종에서 모두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2.4% 증가). 도소매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음(그림 2 참조).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모두 증가하여 3.8% 증가하였으며, 3개월째 증가세 지속됨(전월대비 0.6% 증가).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3%로 전

월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5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5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3.9	12.7	11.4	6.7	3.8	4.3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4.5	13.2	11.6	7.0	3.5	4.1
	출하	10.8	4.4	2.8	2.5	6.7	10.0	11.3	10.8	10.1	5.8	3.5	3.6
	수출	12.2	7.3	9.9	11.2	17.6	21.9	28.2	23.4	20.4	15.0	10.9	4.3
	내수	10.0	2.8	-0.7	-2.1	0.9	3.7	2.0	3.8	4.1	0.3	-1.2	3.1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0.6	0.9	-0.5	-0.2	0.7	2.4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2.8	-0.6	-1.1	-1.4	-1.0	3.8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3.7	3.2	3.8	0.1	4.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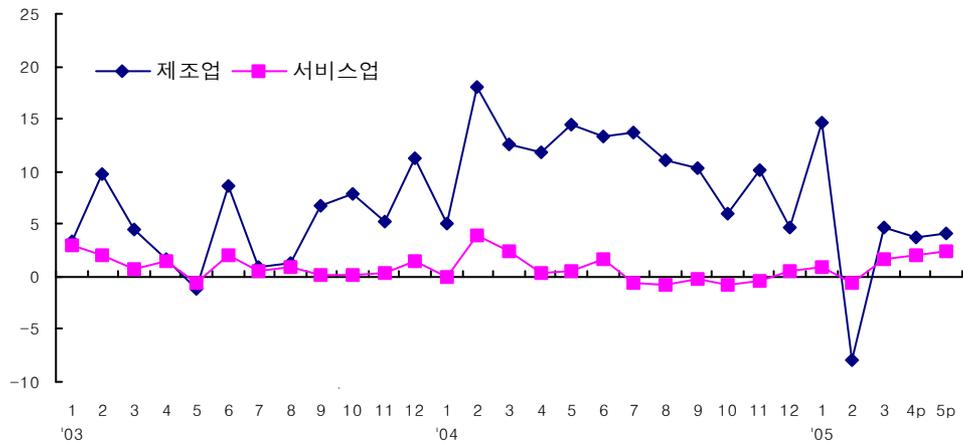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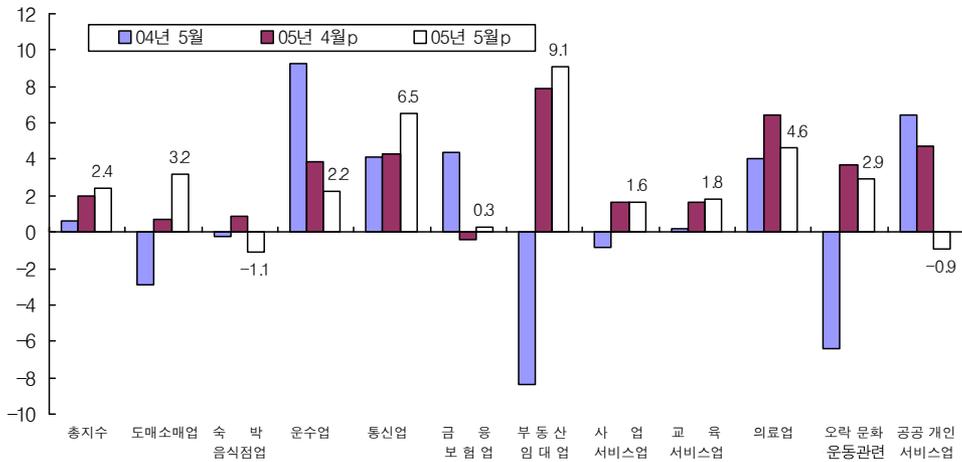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5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05. 6.

——, 『2005년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6.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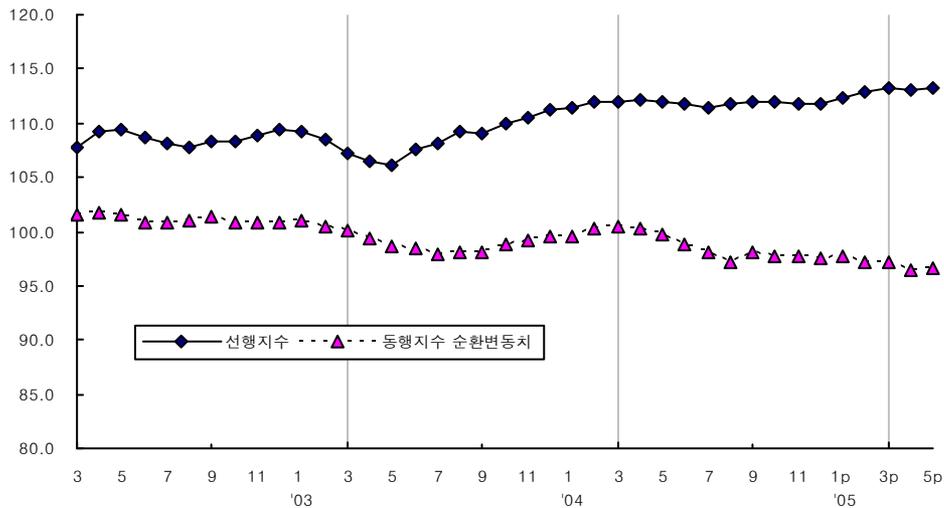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실업률 증가

- 통계청의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을 기존의 '구직기간 1주'에서 미국 등 OECD 회원국들의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구직기간 4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식실업률이 소폭 상승
 - 고용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구직기간'을 길게 제시함으로써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등이 변함.
 - 이로써 숨어있던 잠재적 실업자가 공식통계에 잡히게 됨.
- 2005년 2/4분기의 경제활동인구는 24,00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8천명(1.8%) 증가하고 6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123천명으로 전월동월대비 660천명(1.8%)이 증가
 - 2/4분기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011천명으로 244천명(1.8%)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9,993천명으로 457천명(1.9%) 증가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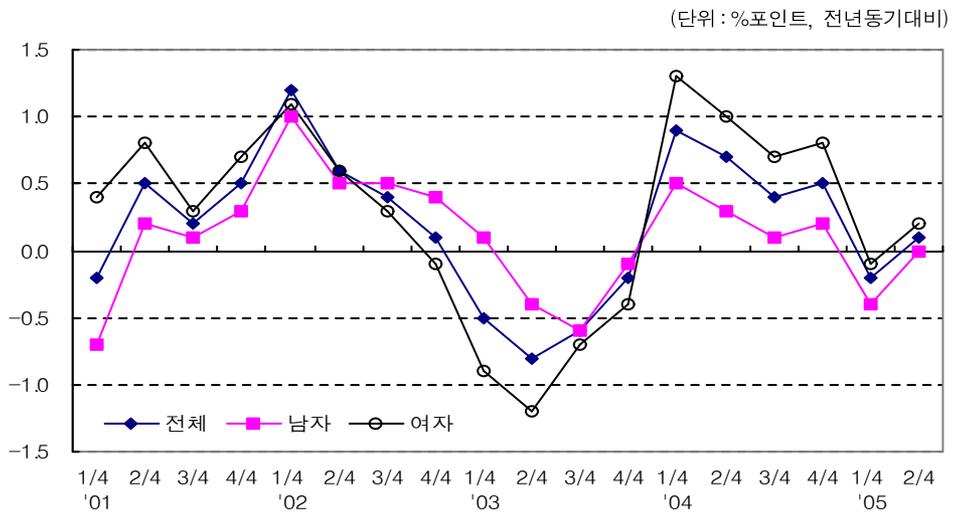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3,035 (2.5)	23,576 (2.1)	23,621 (2.1)	23,482 (1.7)	23,575 (1.8)	23,221 (0.8)	24,004 (1.8)	23,839 (1.3)	24,051 (2.0)	24,123 (1.8)
참가율	61.3	62.6	62.6	62.2	62.3	61.1	62.7	62.4	62.8	62.9
취업자	22,104 (2.2)	22,744 (2.0)	22,822 (1.9)	22,647 (1.6)	22,733 (1.8)	22,247 (0.6)	23,126 (1.7)	22,934 (1.2)	23,199 (2.0)	23,246 (1.9)
고용률	58.8	60.4	60.5	60.0	60.1	58.5	60.4	60.1	60.6	60.6
실업자	931	831	799	835	842	975	878	904	852	878
실업률	4.0	3.3	3.4	3.6	3.6	4.2	3.7	3.8	3.5	3.6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086 (1.1)	14,289 (0.0)	14,273 (-0.3)	14,789 (1.7)	14,271 (1.2)	14,346 (1.7)	14,223 (0.9)	14,245 (1.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6월 고용동향』, 2005. 7.

- 2005년 2/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6월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75.3%), 여성(50.8%)이 각각 0.0%포인트, 0.2%포인트 상승
 - 2003년 4/4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지속(그림 4 참조)
- 2005년 2/4분기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기와 같음(6월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증가).

[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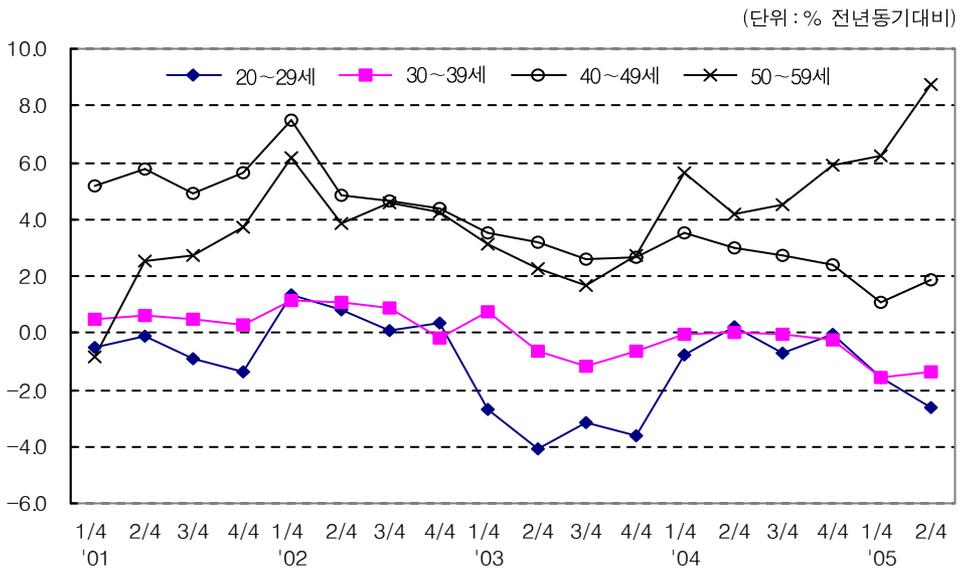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5년 2/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82천명(1.7%)이 증가하여 23,126천명이고 남성취업자는 13,47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94천명(1.6%), 여성취업자는 9,65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6천명(1.8%) 증가
 - 2003년 4/4분기 이후 여성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9세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되는 반면, 50~59세의 증가세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5 참조).
- 2005년 2/4분기 실업자는 87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천명(5.6%)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6월중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증가)
 - 2/4분기 남성실업자는 536천명(32천명, 6.4%), 여성실업자는 342천명(14천명, 4.4%)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 상승(남성 3.8%(0.1%포인트), 여성 3.4%(0.1%포인트)).
- 2005년 2/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4,27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5천명(1.2%)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14천명으로 전년동대비 19천명 증가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감.
- ※ 구직단념자 추이: 95천명(2004. 6) → 136천명(2004. 2) → 109천명(2005. 3) → 103천명(2005. 4) → 114천명(2005. 5) → 114천명(2005. 6)

〔그림 5〕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KOSIS.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5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5천명, 5.6%), 농림어업(50천명, 2.5%), 전기·운수·통신·금융업(51천명, 2.3%), 건설업(33천명, 1.8%)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0천명, -1.2%), 제조업(-51천명, -1.2%) 등에서는 감소함.
- 전산업 중 상대적 비중이 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하였으나 2004년 2/4분기 이후 증감률이 둔화(그림 6 참조).

- 제조업 취업자는 2004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6월
전 산업	22,104 (2.2)	22,744 (2.0)	22,822 (2.0)	22,647 (1.6)	22,733 (1.8)	22,247 (0.6)	23,126 (1.7)	22,934 (1.2)	23,199 (2.0)	23,246 (1.9)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89 (-7.6)	1,933 (-7.5)	1,789 (-4.9)	1,525 (-5.2)	2,018 (2.5)	1,935 (0.2)	2,061 (4.0)	2,056 (3.4)
제조업	4,278 (2.6)	4,308 (1.7)	4,316 (2.2)	4,278 (2.7)	4,296 (1.2)	4,260 (-0.4)	4,257 (-1.2)	4,271 (-1.2)	4,249 (-0.9)	4,251 (-1.5)
건설업	1,762 (1.6)	1,864 (0.6)	1,865 (0.0)	1,790 (-1.7)	1,864 (0.6)	1,692 (-4.0)	1,897 (1.8)	1,851 (-0.9)	1,909 (2.7)	1,931 (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12 (-0.1)	5,866 (0.5)	5,863 (0.4)	5,819 (0.2)	5,853 (0.0)	5,835 (-1.3)	5,796 (-1.2)	5,792 (-1.4)	5,791 (-1.2)	5,806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62 (7.3)	6,542 (8.0)	6,581 (7.7)	6,617 (5.8)	6,711 (6.1)	6,714 (5.5)	6,907 (5.6)	6,832 (5.2)	6,938 (5.9)	6,950 (5.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0.2)	2,194 (0.9)	2,197 (2.6)	2,205 (2.4)	2,202 (1.8)	2,233 (2.3)	2,232 (3.1)	2,231 (2.0)	2,23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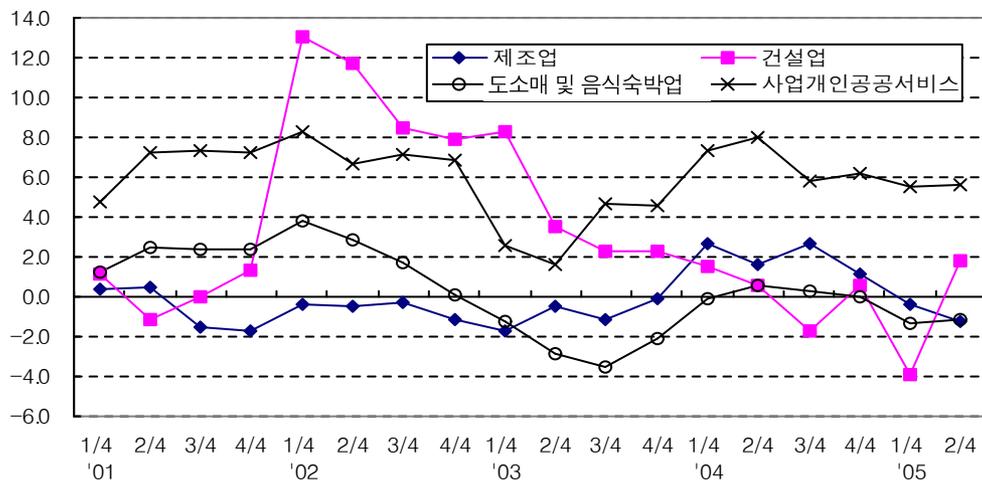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6월 고용동향』, 2005. 7.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고 계절적 일거리 증가로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3/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상용근로자 증가세 지속,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

- 2005년 2/4분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77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천명(0.1%)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3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1천명(2.5%) 증가
 - 임금근로자가 2003년 3/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비임금근로자는 2004년 1/4분기 이후 처음 0.1% 증가
 - 6월 중 비임금근로자는 7,8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명(1.0%)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4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3천명(2.3%) 증가
 - 2004년 1/4분기 이후 일용근로자의 증가추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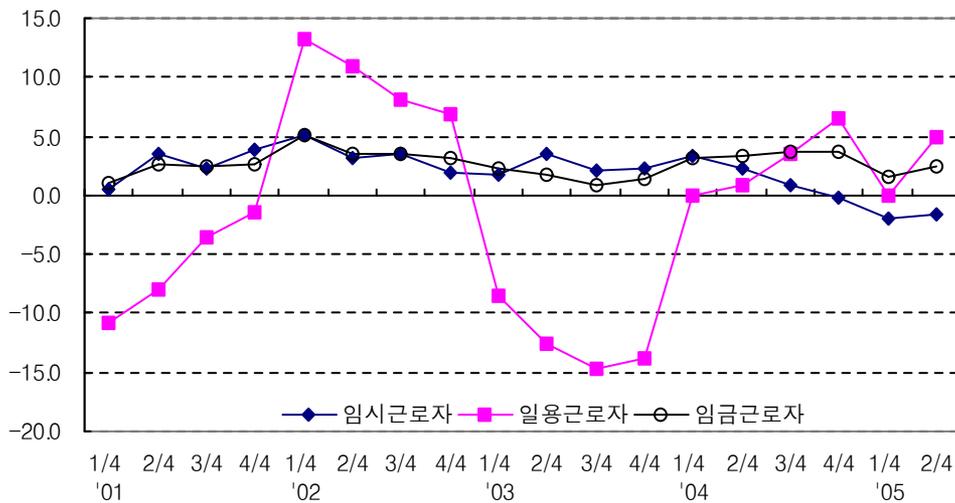
	2004					200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6월
	전 체	22,104 (2.2)	22,744 (2.0)	22,822 (2.0)	22,647 (1.6)	22,733 (1.8)	22,247 (0.6)	23,126 (1.7)	22,934 (1.2)	23,199 (2.0)
비임금근로자	7,490 (0.3)	7,762 (-0.4)	7,764 (-1.2)	7,769 (-2.1)	7,631 (-1.5)	7,391 (-1.3)	7,772 (0.1)	7,675 (-0.6)	7,798 (0.0)	7,844 (1.0)
자영업주	6,001 (2.3)	6,136 (1.9)	6,140 (1.1)	6,177 (0.1)	6,126 (0.2)	6,022 (0.4)	6,210 (1.2)	6,149 (0.6)	6,221 (1.1)	6,261 (2.0)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624 (-9.1)	1,593 (-9.9)	1,505 (-8.0)	1,368 (-8.1)	1,562 (-3.9)	1,526 (-5.3)	1,577 (-3.9)	1,583 (-2.5)
임금근로자	14,614 (3.2)	14,983 (3.3)	15,058 (3.7)	14,878 (3.6)	15,102 (3.6)	14,856 (1.7)	15,354 (2.5)	15,260 (2.1)	15,401 (3.1)	15,401 (2.3)
상용근로자	7,460 (4.0)	7,586 (4.6)	7,606 (5.0)	7,671 (5.5)	7,781 (5.4)	7,803 (4.9)	7,936 (4.6)	7,907 (4.7)	7,971 (4.9)	7,931 (4.3)
임시근로자	5,067 (3.3)	5,199 (2.3)	5,228 (2.8)	5,035 (0.9)	5,026 (-0.3)	4,968 (-2.0)	5,112 (-1.7)	5,084 (-2.3)	5,107 (-1.2)	5,144 (-1.6)
일용근로자	2,087 (0.0)	2,197 (0.9)	2,225 (1.4)	2,172 (3.5)	2,295 (6.5)	2,085 (-0.1)	2,306 (4.9)	2,268 (3.5)	2,323 (6.8)	2,326 (4.5)
36시간 미만	2,587 (0.8)	2,509 (27.9)	2310 (19.5)	2,687 (-10.0)	2,501 (5.5)	2,757 (6.7)	2411 (-3.6)	2,521 (-13.2)	2,389 (3.3)	2326 (0.7)
36시간 이상	19,125 (0.8)	20,004 (-0.8)	20,262 (0.1)	19,563 (3.6)	20,000 (1.4)	18,783 (-1.8)	20,473 (2.3)	20,181 (3.3)	20,572 (1.8)	20,666 (2.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6월 고용동향』, 2005. 7.

- 상용직 중심으로의 근로자 이동이나 임시근로자의 계속된 감소는 좋은 현상이나 일용근로자의 증가로 고용의 질 문제가 우려되며 감소된 임시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축적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함.
- 2005년 2/4분기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41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8천명(-3.6%)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473천명으로 469천명(2.3%) 증가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청년층(15~29세)과 대졸 이상 실업률 감소

- 2005년 2/4분기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에서 전년동기대비 25천명(-0.3%포인트)이 감소했으나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증가
 - 6월 중 실업자도 청년층(15~29세)에서 0.2%포인트 감소하여 7.8%이고 다른 연령계층에서 모두 증가
 - 2005년 2/4분기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 20천명(2.7%), 고졸은 21(4.3%)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하였고,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5천명(3.5%) 감소(실업률은 -0.1%포인트)
- 2005년 2/4분기 전체 실업자 878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4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37천명으로 58천명 증가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58천명으로 20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직한지 1년 이상된 전직실업자는 179천명으로 38명이 증가
- 신규실업자(4.7%)와 전직실업자(95.3%)의 비중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시사
 ※ 전직실업자 비중: 93.7%(2004. 2/4) → 95.3%(2005. 2/4)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6월
전 체	931(4.0)	831(3.5)	799(3.4)	835(3.6)	842(3.6)	975(4.2)	878(3.7)	904(3.8)	852(3.5)	878(3.6)
15~29세	472(9.3)	402(8.1)	399(8.0)	374(7.5)	400(8.1)	448(9.0)	377(7.8)	396(8.2)	360(7.4)	376(7.8)
30~39세	193(3.0)	186(2.9)	176(2.7)	204(3.2)	201(3.2)	224(3.6)	200(3.2)	215(3.1)	196(3.1)	191(3.0)
40~49세	159(2.5)	138(2.2)	126(2.0)	152(2.4)	141(2.2)	182(2.9)	165(2.5)	166(2.6)	162(2.5)	167(2.5)
50~59세	79(2.4)	77(2.2)	72(2.1)	78(2.3)	78(2.2)	94(2.7)	94(2.5)	97(2.6)	88(2.4)	96(2.5)
60세 이상	28(1.4)	29(1.2)	27(1.1)	27(1.2)	23(1.0)	23(1.3)	42(1.6)	31(1.2)	46(1.8)	48(1.8)
중졸 이하	155(2.7)	141(2.3)	146(2.4)	153(2.6)	144(2.4)	169(3.1)	161(2.7)	157(2.6)	162(2.7)	164(2.7)
고 졸	495(4.9)	423(4.2)	422(4.1)	443(4.3)	478(4.7)	528(5.2)	444(4.3)	446(4.4)	425(4.1)	460(4.5)
대졸 이상	280(3.9)	268(3.6)	231(3.1)	239(3.3)	220(3.0)	277(3.7)	273(3.5)	301(3.9)	265(3.4)	254(3.3)
신규실업자	86	52	45	32	40	60	41	51	37	36
전직실업자	845	779	755	803	803	915	837	854	815	841
1년 이상	158	141	132	129	144	175	179	171	182	183
1년 미만	687	638	622	674	659	740	658	682	633	658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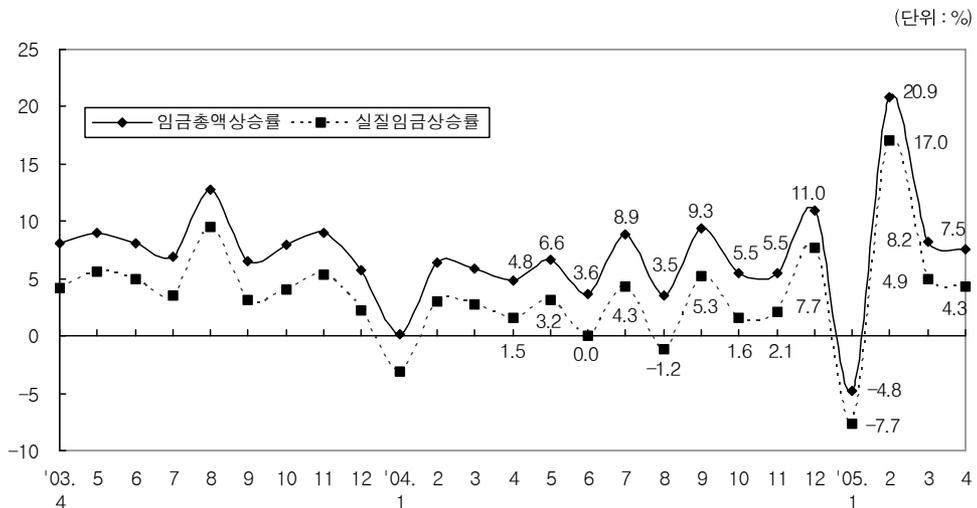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5년 6월 고용동향』, 2005. 7.

임금 동향

◆ 2005년 4월 임금상승률, 오름세 지속

- 2005년 4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268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5%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4.8%보다 2.7%포인트 높은 수치임.
 - 1~4월 임금총액은 2,32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상승
 - 2005년 4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초과급여가 대폭 상승하였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와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4.3% 상승
 - 2005년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4.3% 상승함.
 - 1~4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1~4월	
		2월	3월	4월						
임 금 총 액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348 (7.5)	2,524 (20.9)	2,248 (8.2)	2,268 (7.5)	2,328 (7.5)
정 액 급 여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726 (8.0)	1,701 (8.3)	1,724 (7.4)	1,722 (7.7)	1,725 (7.9)
초 과 급 여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2 (7.8)	138 (3.7)	148 (12.8)	150 (10.3)	144 (8.4)
특 별 급 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684 (78.4)	375 (9.9)	397 (5.7)	459 (5.7)
실 질 임 금 지 수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20.3 (4.2)	129.5 (17.0)	114.4 (4.9)	115.4 (4.3)	119.1 (4.2)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7.0 (3.2)	116.9 (3.3)	117.8 (3.1)	117.9 (3.1)	117.2 (3.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승률보다는 낮은 4.2%의 상승률을 기록

◆ 2005년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7%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6월 30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7%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4%보다 0.7%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동기의 5.5%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3.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8%에 비해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6월 30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1,635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30.0%)보다 낮은 26.3%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26.6%로 6,024개소 중 1,604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31개소가 타결되어 15.2%의 진도율을 기록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6월 30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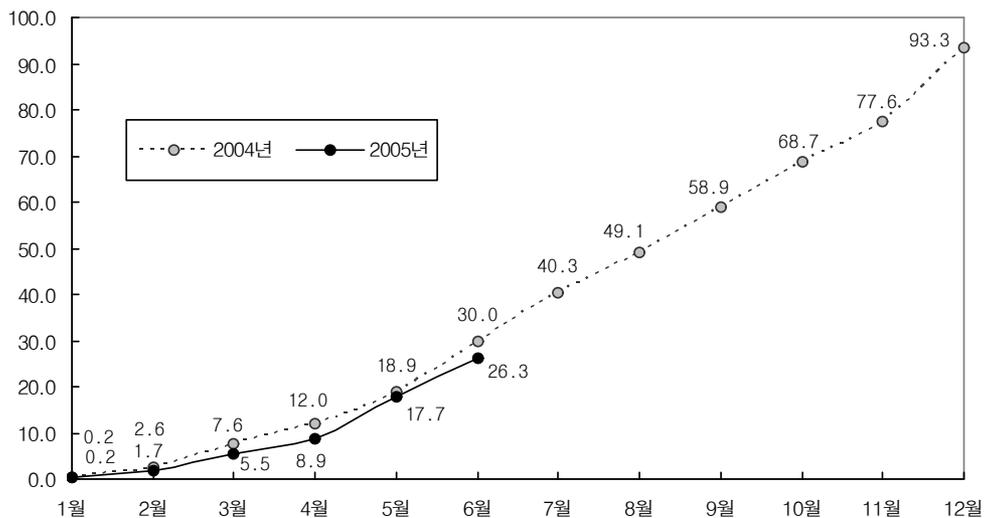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1,635 (1,770)	26.3 (30.0)	4.7 (5.4)
민간부문	6,024 (5,727)	1,604 (1,748)	26.6 (30.5)	4.7 (5.5)
공공부문	204 (182)	31 (22)	15.2 (12.1)	3.8 (2.8)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9〕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